



대한 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 소식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발행인 : 박찬일/편집인 : 서창욱/서울시 용산구 이촌 1동 302-75/전화 02)798-3807/전송 02)794-3148

www.kamje.or.kr



회장 취임 인사

올해 3월에 있는 의편협 정기총회에서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된 박찬일 교수(연세의대 병리학)의 취임인사를 신는다.



저는 1996년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이하 의편협으로 약칭)가 설립되고부터 초기 3년 동안 운영위원장으로 그 기반을 구축하는데 일조를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설립초기 몇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이제 그 당시 우리들이 그렸던 지금쯤의 모습을 훌쩍 앞질러 와있음을 실감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협의회 회장을 맡게 된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설립한지 9년 밖에 안 되는 연륜에 이처럼 기대이상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협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명명한 안목과 추진역량을 가진 역대 회장님의 열정과 적재적소에서 전문지식을 아낌없이 발휘해 주신 제반 위원회 구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깊은 관심과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참여하여 협조해 주신 회원학회가 그 바탕임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함창국 명예회장님과 조승열 전임회장님을 비롯하여 그동안 의편협과 국내 의학 관련학술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임원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회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의편협은 의학 관련학술지를 발행하는 147개 학회를 단체회원으로 승인하였고, KoreaMed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KoreaMed는 의편협의 국내 의학 관련학술지 평가를 통해 선정된 105개 등재학술지 논문의 영문서지정보와 초록정보 데이터베이스로서 논문의 원본보기 기능(학술지 web-site의 원문으로 link-out)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이미 레코드입력 10만 건을 돌파하였으며, 국내외 로부터의 접속빈도는 매일 평균 약 500회이고 우리나라 이외의 접속국가 수가 90개를 넘습니다.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읽히기를 바라는 것이므로 널리 읽히는 학술지에 실릴수록 더 좋습니다. 학술지는 훌륭한 논문을 선별하여 실음으로써 더욱 널리 읽히는 잡지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의편협의 역할은 의학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모든 학술지가 영향력 있을만한 논문을 실어 적기에 출간되고 그 전문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학자의 학술논문이 보다 널리 인용되고 활용되도록 선도하고 돕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그 동안 추진해온 사업은 지속되어야 하며, 의편협은 운영위원회와 상설 전문위원회인

교육연수위원회, 평가위원회 및 정보관리위원회를 유지해야 합니다. 모두가 협의회 설립취지를 이행하는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의학 관련학술지를 발행하는 모든 학회로 하여금 협의회가 정한 자격을 갖추어 단체회원이 되도록 독려해야 하겠습니까. 교육연수위원회는 논문작성, 논문심사, 학술지 편집 등의 프로그램으로 매년 신입편집인을 위한 워크샵과 upgrade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보다 많은 학술지가 KoreaMed를 비롯한 국내외 학술지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도록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평가위원회는 아직 협의회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회원 학회 학술지를 대상으로 연간 약 4회의 평가회를 시행함으로써 KoreaMed 등재학술지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며, 이미 등재된 학술지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더욱 더 높은 수준의 학술지가 되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정보위원회는 KoreaMed 등재학술지 게재논문 중 아직 입력하지 못한 논문과 신규등재 학술지 게재논문을 꾸준히 입력하여 3년 후에는 15만개 이상의 영문초록이 담긴 데이터베이스가 되기를 기대하며, 한편 MeSH 입력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KoreaMed 등재여부를 결정하는 학술지평가와 등재학술지 게재논문의 인용색인(KoMCI)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인식은 그 이용가치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학술논문의 가치를 높이는 일도 협의회 임무라면 KoreaMed에 대한 소개와 홍보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하겠습니까. 나아가 국제적인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세계화를 모색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2006년은 협의회 설립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9년 동안 우리나라 의학 관련학술지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리고 협의회가 학술지 발전에 미친 긍정적 역할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되돌아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회가 계획하거나 기대하는 모든 일은 우리나라 학술지와 학술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추구해야 할 끝이 없는 목표입니다. KoreaMed와 KoMCI 담당자, 임원과 위원 여러분의 능력만 믿습니다. 작지만 저도 힘을 보탬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힘든 만큼 생생하지 않는 학술지 편집 때문에 애쓰시는 편집인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5. 7.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회장 박 찬 일



제4기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임원 및 위원회 구성

제4기 의편협을 이끌어갈 새 집행진이 구성되었다. 2005년 3월 29일에 있던 정기총회에서는 새 회장에 박찬일 교수(연세의대 병리학), 부회장에 임정기 교수(서울의대 영상의학), 부회장에 임정기 교수(서울의대 영상의학)를 선출하였고 임원 및 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위촉하였다.

의편협의 초대회장은 박찬일 교수(연세의대 산부인과학), 제2기는 함창국 교수(한양의대 방사선과학), 제3기는 조승열 교수(성균관의대 기생충학)가 회장직을 수행해왔다.

■ 임 원

임기 3년 : (2005.4.1 ~ 2008.3.31)

직 위	성 명	소 속
회 장	박 찬 일	연세의대 병리학
부 회 장	임 정 기	서울의대 영상의학
감 사	조 수 현	서울의대 예방의학
감 사	김 수 념	건국대의대 산부인과학
평 가 위원회	위원장	홍 성 태
	간 사	이 성 구

직 위	성 명	소 속
정보관리위원회	위원장	허 선
	간 사	김 수 영
교육연수위원회	위원장	서 연 림
	간 사	정 희 진
운 영 위원회	위원장	서 창 옥
	간 사	나 은 우

■ 운영위원회

직 위	성 명	소 속
위원장	서창옥	연세의대 방사선종양학
간사	나은우	이주의대 재활의학
위원	오병훈	연세의대(경기광주) 신경정신의학
위원	최금자	이화의대 외과학
위원	한상원	연세의대 비뇨기과학
위원	김동규	서울의대 신경외과학
위원	이주화	인제의대 안과학

■ 교육연수위원회

직 위	성 명	소 속
위원장	서연림	성균관의대 병리학
간사	정희진	고려의대 내과학
위원	박병주	서울의대 예방의학
위원	이순남	이화의대 내과학
위원	배종우	경희의대 소아과학
위원	이종원	가톨릭의대 성형외과학
위원	한동수	한양의대 내과학
위원	유은실	울산의대 병리학

■ 평가위원회

직 위	성 명	소 속
위원장	홍성태	서울의대 기생충학
간사	이성구	울산의대 내과학
위원	송경순	연세의대 진단검사의학
위원	김주한	한양의대 신경과학
위원	이경수	성균관의대 영상의학
위원	배종우	경희의대 소아과학
위원	박영주	고려대 간호대학 간호학

■ 정보관리위원회

직 위	성 명	소 속
위원장	허 선	한림의대 기생충학
간사	김수영	한림의대 가정의학
위원	함창국	한양의대 영상의학
위원	이춘실	숙명여대 문헌정보학
위원	박영주	고려대 간호대학 간호학
위원	정소나	가톨릭의대 도서관



한국의학학술지 인용정보 KoMCI 2004 발간

KoreaMed에 등재된 학술지 105종(2004년 기준)에 대한 국내 의학학술지 상호간의 인용형태를 분석한 「한국의학학술지 인용정보 KoMCI 2004」가 6월 30일에 발간되었다.

구독을 원하는 회원단체는 대한의학회 사무국(Tel : 798-3807, Fax : 794-3148)으로 연락하면 받아볼 수 있다.



제18차 의학학술지 평가회

2005년 6월 24일(금) 오후 4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회의실에서 제18차 의학학술지 평가회가 개최되었다. 노인병을 포함한 8종의 학술지가 평가받았고, 8종 모두 평점 2.5 이상을 획득하여 KoreaMed(www.koreamed.org)와 KoMCI(www.komci.org)에 등재되었다. 심사평과 평가점수를 아래에 실는다.

1. 노인병

대한노인병학회에서 발행하는 공식학술지로서 연 4회 발행한다. 이번에 평가한 2005년도 3월호는 2편의 중설 5편의 원저와 4편의 증례를 포함하여 83쪽을 발행하였다. 목차의 저자와 본문의 저자가 다른 논문도 보였고, 표지의 오류도 지적되었다. 투고규정에서 단행본 기재 예문의 오류가 보였으며 논문

제목에서 저자 소속 표기의 차이를 보인 논문이 있었으며, 오자가 발견되었다. 영문초록의 경우 체제가 일정하지 않은 논문이 있었고 소대문자, 마침표 오류 등도 보였고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도 지적되었다. 본문에서도 소대문자 등 사소한 오류가 자주 보였으며 참고문헌에서는 투고 규정과 달리 기재한 논문 일관성이 없는 논문, 저지수의 표기법의 오류 등이 보였다. 표의 경우는 제목의 체계가 일정하지 않았으며, 규격도 수정이 필요하였다. 투고 규정과 달리 국문으로 작성된 표도 있었다. 사진에서는 독자가 잘 알이볼 수 있도록 화살표로 표시하는 것이 좋을 논문도 볼 수 있었다. 사진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술지의 재질도 개선하고 색상도 다양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판권부분에서 학술지의 명칭이 한자로 달리 기재되어 있었다. 저자 점검표 보완도 권고하였다.

2. 부인종양

본 학술지는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의 공식학술지로서 연 4회 발행한다. 이번에 평가한 2005년도 3월호는 1편의 총설 10편의 원저와 1편의 증례를 포함하여 86쪽이 발행되었다. 투고규정은 학회홈페이지에서 확인하였으며 접수 및 심사과정을 온라인으로 시행하는 학술지이다. 논문의 제목기술에 있어 체계상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고 초록에서 오자가 발견되었다. 본문의 경우 서론 기재법 등 투고규정과 다른 체계의 논문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개정된 투고 규정으로 평가하지 못하여 지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회홈페이지의 투고규정내용도 수정되지 않아 적절히 평가되지 못하였다. 각주, 표 제목의 대소문자, 그림 설명의 체계 등의 오류, 오자 등을 지적할 수 있었다. 표의 가로줄이 많은 논문이 지적되었으며 참고문헌의 경우도 투고규정과 다른 논문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학회명칭, 학술지의 명칭을 통일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3. 대한소아내분비학회지

본 학술지는 대한소아내분비학회의 공식학술지로서 연 2회 발간된다. 이번에 평가한 2004년도 12월호는 6편의 심포지엄 원고, 9편의 원저와 4편의 증례를 포함하여 발행되었다. 투고규정은 잘 정리되어 있었으며 포함 내용도 충실하였으나 오자와 일부 표기방식이 지적되었다. 논문의 저자소속 표기의 차이를 보인 논문이 있었고 국문초록의 경우 결과 기재의 차이를 보인 경우가 있었다. 본문의 경우에는 체제도 일정하고 무작위로 택한 부분에서 오자도 없었다. 참고문헌의 경우 투고규정이 정한 방식과 다르게 쓴 논문들이 보였다. 표의 각주 표기법의 통일이 필요하였고 오자도 발견되었다. 사진에서는 인적사항이 그대로 노출되기도 하였으며 국문으로 기재된 그림이 있었다. 총설의 경우도 그림의 선명도를 높일 필요가 있었다.

4. 소아심장

본 학술지는 대한소아심장학회의 공식학술지로서 연 2회 발간된다. 이번에 평가한 2004년도 12월호에는 25편의 심포지엄 원고, 10편의 원저와 3편의 증례를 포함하여 발행되었다. 투고규정은 잘 정리되어 있었으며 포함 내용도 충실하였으나 오자와 일부 표기방식과 띄어쓰기가 지적되었다. 투고규정에 종설에 대한 언급도 권고하였다. 논문의 저자소속 표기의 차이를 보인 논문이 있었고 국문 요약에서 결과기재 양식의 차이를 보이는 논문들이 있었다. 증례에서 요약을 기재한 논문도 있었는데 이는 투고규정에서 명확히 기술할 필요가 있었다. 표의 약어 설명 체계의 사소한 차이를 보였으며 인쇄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표가 지적되었다. 어린이 얼굴 사진이 그대로 게재된 증례도 있었고 사진의 선명도가 떨어지는 논문도 보였다. 현미경 사진의 배율표시, 띄어쓰기 등도 지적되었다. 참고 문헌의 경우 투고 규정이 정한 방식과 다르게 쓴 논문들이 보였다.

5. 재활간호학회지

한국재활간호학회에서 연 2회 발간하는 학술지임 2004년 12월에 발간된 제7권 2호를 평가하였다. 편집사무실과 편집업무 전담사무직원을 따로 두는 등 편집 업무와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학회 임원진이 바뀔 때마다 편집인이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편집위원회도 지주적

으로 운영되는 것이 권장된다. 표지에 영문 잡지명을 추가하는 등 표지 도안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 투고 규정이 비교적 상세하고 모든 논문들이 규정을 잘 지키고 있으나 초록과 본문에 많은 오자가 발견되고 있어서 저자와 편집진의 좀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게재 원고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논문 투고자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술지의 목적과 논문의 범위(Aims and Scope)에 대한 명확한 기술이 필요하다. 현재 참고 문헌 작성에서 한글 논문은 한글로 기재하고 있으나 논문의 인용도 조사 작업을 위하여 한글 논문도 참고 문헌 작성은 영문으로 할 것이 권장된다.

6.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

이 학술지는 대한수의학회에서 영문으로 1년에 4번 발행하고 있다. 이번 2006년도 3월에 발간된 6권 1호를 평가하였다. 수록된 14편의 논문 중 4편의 저자가 외국인으로 국제적인 학술지를 지향하고 있고 편집위원에도 외국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편집위원 기제가 질서 있게 정리되는 것이 좋겠다. Medline에 등재된 잡지로 몇 군데 오자가 발견되나 표지도 안과 전체적인 layout 등 편집진의 정성이 많이 들어간 잡지로 평가된다. 다만 투고 규정 중 Table과 Figure 작성 방법이 상세하지 못하여 Table의 각주 표기 등 형식이 통일되지 못한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7. Genomics & Informatics

한국유전체학회에서 영문으로 연 4회 발간하는 학술지이다. 2005년 3월 발간된 제3권 1호를 평가하였다. 편집인이 관리하여야 하는 부분에 많은 오자와 오류가 발견되고 투고 규정이 상세하지 못하여 게재된 논문들의 형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 참고 문헌에서 잡지명 약자 표기와 초록 작성에서 투고규정을 따르지 않은 논문들이 있었다. 투고 규정을 좀 더 상세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투고규정에 이중 게재 방지 등 저작권 관련 조항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인쇄 과정에서의 오류로 생각되는 Table의 잘못도 발견되었다. 국내에서 발간되는 학술지 중 드물게 잡지 구독료를 받고 판매하고 있었는데 표지 도안과 지면 배치 등 보기 좋고 읽기 쉽게 편집되고 있으나 세세한 부분에 오류가 많으므로 편집인이나 출판사의 좀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8. 노인정신의학

이 학술지는 대한노인정신의학회에서 연 2회 발간하고 있다. 2004년 12월에 발간된 제8권 2호를 평가하였다. 표지도 안은 훌륭하나 편집인이 관리하여야 하는 부분에 오류가 많이 발견된다. 투고 규정의 일반 원칙은 모 학회인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의 투고 규정에 준한다"라고 하고 매우 간략한 투고 규정이 있는데 독립적이고 상세한 투고 규정이 바람직하다. 학술지의 목적과 논문의 범위(Aims and Scope)가 기재되어야 하겠으며 논문의 종류에 따른 작성 양식이 필요하고 논문 마감일은 필요하지 않겠다.

초록과 본문의 작성 체계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오자도 자주 발견되었다. 투고 규정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도록 투고자들을 교육시키고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편집인과 출판사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참고 문헌 작성에서 한글 논문은 한글로 기재하고 있으나 논문의 인용도 조사 작업을 위하여 한글 논문도 참고 문헌 작성은 영문으로 할 것이 권장된다.

제18차 의학학술지 평가회 - 평점

■시 간: 2005년 6월 24일(금) 오후 4시

■장 소: 서울의대 교수회의실

항목	세부항목	노인병	부인종양	대한소아내분비 학회지	소아심장	재활간호 학회지	Genomics & Information	J Vet Sci	노인정신 의학
자 체 평 가	1-1	1	2	5	2	2	해당무	4.33	3
	1-2	5	2	4	4	5	5	4	4
	1-3	3	2	2	2	2	5	2	1
	1-4	3	5	5	5	5	5	5	5
	1-5	4.67	5	5	4.67	5	5	2	5
	1-6	4	4	5	5	5	5	3.67	5
	1-7	3	2	2	2	5	2	5	4
	1-8	3	2	2	3.17	3	3	3	3
	1-9	5	1	5	5	5	5	5	5
	1-10	1	1	2.33	5	5	5	5	5
	1-11	5	3	2	4	5.67	2	3.67	5
	1-12	3	1.33	2	2.67	2	4	4	3
	1-13	1	5	2	4.33	2	2	3.33	2
	소계	41.67	35.33	43.33	48.83	51.67	48.00	50.00	50.00
실 물 평 가	2-1	2.67	5	3	3	2	5	5	5
	2-2	2.33	3.33	4	2	1	2	2.67	1.33
	2-3	4	4.33	4.83	4	3.33	5	5	3.33
	2-4	5	5	4.67	4.67	3	4.17	4.67	3.33
	2-5	4	4.33	4.33	4.33	4.67	3.67	3.67	2.67
	2-6	0.67	1.67	2	3	1.67	3	4	4.33
	2-7	1	2.33	2.83	5	1	2.33	2	1
	2-8	2	2.67	4.33	3.33	2	2.67	4.33	1
	2-9	1.33	2.67	2.67	3.33	1.33	3	1.33	2.33
	2-10	1.67	3.67	3.67	4	3.67	3.33	3.67	3.67
	2-11	2.33	4	3.17	3.67	해당무	4.67	4.17	4.50
	2-12	3.67	4	4.50	4.67	4	4.33	4	5
	2-13	4	4.67	4.50	4.50	3.83	5	5	4.50
	소계	34.67	47.67	48.50	49.50	31.50	48.17	49.50	42.00
협 의 회 조 사 항 목	3-1	2	1	1	1	0	0	0	1
	3-2	1	1	1	1	1	0	0	1
	3-3	0	0	0	0	0	0	0	0
	3-4	0	0	0	0	0	0	3	0
	3-5	2	0	0	0	0	0	2	0
	3-6	3	0	0	0	0	0	4	0
		소계	8	2	2	2	1	0	9
평 점	2.64	2.66	2.93	3.14	2.72	3.10	3.39	2.94	
KoreaMed 등재	0	0	0	0	0	0	0	0	

© 세부항목 내용은 www.kamje.or.kr- 「국내 의학학술지 평가기준」에서 볼 수 있다.